

2025년 겨울호

제 121 호 2025년 12월 1일
서울대 기독교교회 소식지

진리는 나의 빛

창간 1994년

十 올해의 말씀 十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 119:9)

발행인 • 임현우 / 편집인 • 권순희 최하영 / 학생기자 • 장동원 조건호 이예은 / 발행처 • 서울시 관악구 서림7길 대학촌교회 / TEL • 888-9111 FAX • 888-9112



종강예배

서울대기독교인연합 종강예배가 12월 1일 월요일 19시에 26동에서 열린다. 이번 종강예배 말씀은 하도균 목사(서울신학대학교)가 담당한다. 주제는 ‘복음의 진군’이며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8이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단과대별 식사 교제가 예정되어 있다.

주요 기사 안내

1면 간사칼럼 ... 장정완

2면 중앙위원의 글 ... 황보세린

학생기자의 글 ... 이예은

3면 저학번 MT 후기 ... 김가연 노하린

4-5면 예술과 신앙 ... 조건호 최세린

단대기연

6면 한사랑선교회 소식 ... 아일린

서기연 심리상담 ... 최은선

7면 열린예배 통역팀 후기 ... 최하훈

대학촌교회 50년사 를 읽고 ... 최하영

8면 열린예배

간사칼럼

성경 공부를 1년 정도 한 형제가 저에게 질문을 해 왔습니다. “간사님!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나요?” 그 질문을 받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이기도 했고, 또한 캠퍼스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간사 사역의 핵심이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형제에게는 평소 정리된 정답 같은(?) 말로 답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스스로에게 계속 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말입니다. 원래 ‘제자’라는 말은 자기 스승을 배우고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말 ‘제자’라는 의미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매우 흔한 표현으로 정의됩니다. 그런데 영어 단어 제자 곧 ‘disciple’은 라틴어 ‘discipere’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말의 뜻은 ‘Fully understand: 완전히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기초해 볼 때, 제자는 자기가 따르는 스승을 ‘완전히 이해하고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온전히 알고 따라야 한다는 전제가 붙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고 따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에 대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정리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마가복음 8장 27~38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방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로 가셨습니다. 저도 2년 전 해외 포럼의 기회를 얻어 이스라엘을 갔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보았습니다. 로마의 판신(신들의 아버지) 신전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던 유적지에도 가보았습니다. 그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경계 밖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곳으로 함께 가신 것은 의도하신 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마가복음 8장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부분과 의도하지 않으신 내용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음을 관찰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2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적인 관계가 아닌, 개별적이면서도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그(the)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도하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하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예수님의 제자’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티끌과도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동시에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아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일들에 대해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막 8:31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의도하여 가르치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

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며 따라야 함을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리어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하는 일에 대한 진짜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은 이러한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깨지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며 꾸짖으십니다. 막 8:33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생각은 다분히 사탄적인 생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기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로 가득 찰 때가 많은 것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나의 수호천사도, 나의 램프, 지니도 아닙니다. 그런데 알라딘의 스토리에서 램프를 문지르는 주인공처럼, 나 스스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문지르며 나의 기대들을 쏟아냅니다. 그 기대들이 이루어지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실현되고, 나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상황이 생기면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는 사라지고, 도리어 나의 믿음과 고백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한 목적이 잘못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자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따르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대나 내 꿈에 대한 실현이 목적으로 대체되어 갈 때가 있습니다. 제자됨의 목적이 변질되고 있음을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저를 향해 꾸짖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너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막 8:34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 온전한 분별을 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일’에 대해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인간의 죄 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 반하는 일들입니다. 나의 죄악 된 본성은 나의 욕망을 이루도록 이끍니다. 인간의 욕망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 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통해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도 자기 죽음을 통해 감당되어 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었듯이,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비정상의 정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활과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의 죽음 역시 우리의 부활과 연

2 서울대 기독교교회 소식지

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고민과 묵상과 자기 성찰은 캠퍼스 사역자의 위치가 아닌 한 명의 제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신선함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삶에 대한 새로운 열망이 생깁니다. 나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를 앞세우고자 하는 그분의 기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명제가,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나를 옮겨줍니다. 나에게 질문을 던졌던 형제와 나의 묵상과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사와 학생이 아니라 함께 제자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동행자로 서고자 합니다. 그 동행에 함께라서 힘이 되고, 예수님이 함께해 주셔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캠퍼스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행자들이 더 늘어나기를 소망해봅니다.

장정완 간사(CMI)

중앙위원의 글

안녕하세요, 현재 중앙위를 맡고 있는 심리학과 24학번 황보세린입니다.

글을 쓰면서 벌써 이번 학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 실감나기 시작합니다. 설렘 속에 중앙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새 대표님과 새 중앙위 멤버를 맞이할 때가 되니 기분이 묘합니다. 금방 지나간 것 같으면서도 돌아보면 그새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 주신 기억들이 많아 신기합니다. 아마 서기연 지체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앙위로 한 학기를 돌아보며,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조금 나누고 싶어 적어봅니다.

중앙위를 지원한 경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한창 하나님께 제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물을 때, 교회 여름 수련회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저는 당장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더 관심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제가 무엇을 사모하느냐를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날, 서로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될 그 날, 우리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기뻐하실 날을 가만히 꿈 꿔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 중에 제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보다는, 제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그 나라를 이뤄갈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는 욕심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25년 1학기 개강예배에서 학생들을 위해 특송

을 준비해주신 교수님들이 26동 강의실의 단상을 가득 채운 것을 보며, 하나님이 서울대 캠퍼스를 위한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울대는 회한할 정도로 캠퍼스를 위해 헌신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섬겨 주시는 학생들과 교수님들, 간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각각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시키셔서 서울대에 지정하여 부르신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캠퍼스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실행하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날 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을 단순히 학업의 장소로만 사용하시진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 속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아래 서울대는 포함 되어 있고, 이곳에서 주님의 청년들이 지적으로 뿐 아니라 영적으로 단단히 세워져서 각자의 분야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겠구나. 하나님이 이곳의 학생들을 친히 단련시켜 사용하시겠구나. 그렇다면 저는 그분의 일하심의 현장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있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자리는 서기연의 중앙위 직이었고, 그렇기에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중앙위를 하며

중앙위를 통해 누린 유익 중 하나는 끊임없이 중보하게 하신 것입니다. 중앙위를 단순한 행정직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실상 언제나 기도의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 단체와 사역을 더 알아 갈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더욱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담감이 한편 힘들기도 했지만,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이 제게서 이런 기도를 오래 기다리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이 누군가에게 느끼시는 사랑

과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도 느껴질 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의 벅차오름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제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섬기는 중 흔들리던 때도 많았습니다. 중앙위를 지원하면서부터 걱정했던 제 불성실함이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중앙위와 선교단체에서 요구되는 사역들에 둘 다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그런 제 모습에 여러 번 좌절했습니다. 특히 제 부족함에 함께 섬겨주시는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때에는 어쩌면 제가 괜히 섬김의 자리를 고집해서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사랑의 하나님은 제게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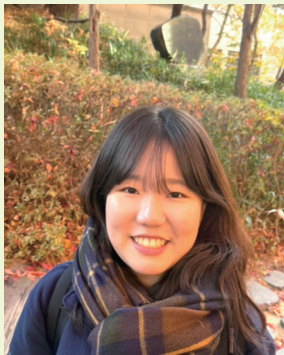
“내 사랑하는 자가 일러 가로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생각해보면 주님은 혼자 일하시길 선호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데에 지팡이가 필요하지 않으셨지만 모세로 지팡이를 내려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걷지 않아도 가나안을 주실 수 있지만 그들이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들어 사용하시는 게, 당신의 길을 저와 걷고 싶어하시기 때문이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서기연 지체분도 올 한 해 각자에게 친히 뻗어 주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으며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시금 다른 것 위에 하나님을 선택할 때,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롭게 넘쳐나기를 믿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황보세린(심리24)

학생기자의 글



살롱!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5년도 2학기 중강호부터 ‘진리는 나의 빛’ 신임 기자로 인사드리게 된 식물생산과학부 25학번 이에은입니다. 먼저 한 학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느낀 것들과 기자로 결단하게 된 계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매해의 첫날마다, 송구영신예배를 드리고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2025년도에도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였고, 저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우는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주변에 크리스천 친구가 많지 않아 늘 믿음의 공동체를 갈망했기에 이 말씀은 제게 큰 위로이자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를 깨우는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을 많이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품고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예배를 통해 그에 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강의실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모습은 제게 학교도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충격이자 감동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쉬는 시간에 친구와 단둘이 태블릿을 통해 찬양을 들으며, 반 친구들과 다 함께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전공과 학년을 불문하고 모든 것을 넘어 한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찬양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또한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그동안 막연히 꿈꾸던 공동체의 기쁨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1학기 교양 수업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친구와 수업 시작 전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기숙사 동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기숙사에 같이 걸어가는 길에 교회 이야기가 나왔고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

나님께서 제 주변에 정말 주를 깨우는 마음으로 부르는 소중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서울대에서의 첫 학기는 하나님께서 제 삶의 걸음을 친히 이끄신다는 사실을 배워가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대학교에서의 첫 방학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다가, 2학기 개강을 앞둔 8월 말에 신임 기자이신 조건호 선배님께서 ‘진리는 나의 빛’ 기자 제안을 주셨습니다. 선배님은 대학생 선교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독서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귀한 섬김의 기회를 조심스럽게 권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진나빛을 통해 어떤 새로운 깨달음과 성장을 경험하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마음 한편에 ‘내 부족함이 드러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채로 있다가, 다음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 말씀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제 약함을 통해 일하시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과 나의 능력으로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나의 약함 속에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저는 진리는 나의 빛 기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학교에서 많은 크리스천을 만나게 하시며 각자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는 나의 빛을 읽으시는 여러분께도 그 은혜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진나빛 기자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담아내는 통로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나의 빛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추운 겨울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이에은(식생25)

저학년 MT 후기

저학년 MT 준비팀

저는 올해 서기연 저학년 MT 준비팀으로 섬기게 된 응용생물화학부 23학번 김가연입니다. 작년 저학년 MT를 통해 또래 기독교인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 큰 은혜였기에, 올해에는 그 감사함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또래 기독교인 친구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저학년 MT를 통해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감동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후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며, 자주 보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도 큰 은혜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선교단체 활동을 하고 있으나 또래 친구가 많지 않은 분들도 이번 저학년 생를 통해 같은 은혜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팀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저학년 MT가 비슷한 나이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과 격려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감사하게도 준비팀으로 섬기는 동안 주님은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인원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새로운 중앙위원들이 함께하게 되어 여러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주님께서서는 다른

준비팀 친구들을 통해 채워주셨습니다.

또 MT 홍보를 위해 인스타그램 릴스를 함께 촬영했는데, 그 과정에서 팀원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저학년 MT뿐만 아니라 서기연의 존재를 널리 알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MT를 준비하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막바지에 참여 인원이 매우 적어 MT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기독교수회관의 수용인원에 알맞은 인원을 보내주셔서 결국 MT를 온전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MT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한 준비팀의 헌신이 MT 당일에 아름다운 결실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며,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학년 MT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준비팀의 손길 하나하나를 통해, 또 MT에 참여한 지체들을 통해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특히 교제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배 후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주시는 류재경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작년 저학년 MT에서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올해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김가연(응생화23)



저학년 MT 참석자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 저학년 MT가 진행되었습니다. 23, 24, 25학번, 그리고 새로 입학한 25.5학번 새내기까지, 약 15명의 학생이 함께 모여 즐겁게 교제하며, 새 학기를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학년 MT는 기독교수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조를 나누어 레크레이션을 하며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있었기에, 처음에는 간단한 빙고 게임으로 자기소개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몸으로 말해요’, ‘네 글자 이어 말하기’, ‘모자 전달하기’, ‘성경 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내기인 저는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함께 웃고 놀다 보니, 어느새 어색함은 사라지고 친밀함과 즐거움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웃으며 즐겁게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게임 후에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간식과 저녁을 함께 나누고, 스트링 아트를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물리천문학부 류재경 교수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이 앞으로 꿈을 비전과 신앙의 방향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으며 걸어가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감사와 결단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히 그때 불렀던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이 청년의 때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느꼈습니다. 함께 신앙을 나누고 성장할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서기연 저학년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지,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기대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재밌는 보드게임을 하며 웃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한층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서기연 저학년 MT를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MT의 모든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음에, 즐겁게 교제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안에서 같은 꿈을 꾸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MT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해주신 서기연 저학년 준비팀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기연 저학번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노하린(영교25)

예술과 신앙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신앙의 표현은 언어적 표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많은 예술가들이 음악으로, 미술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곤 한다. 열렬한 루터교 신자였던 바흐는 한평생 그의 신앙이 담긴 교회음악을 작곡하였으며 빛의 거장이라 불리는 카라바조는 <엠마오에서의 저녁식사>, <그리스도의 매장> 등 다양한 성화를 그려냈다. 성경 속 이야기를 다루는 그림은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걸작들이 존재한다. 기독교 미술은 그저 성경의 삽화가 아니라 묵상의 통로가 되곤 한다. 예술가들은 작품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고 감상자들은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하나님을 묵상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를 한 번 살펴보자.



렘브란트, 돌아온 탕자(The Return of the Prodigal on), 1661-1669년 경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는 누가복음 15:11-32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주제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돌아온 탕자는 당대 네덜란드의 종교개혁 바람 속에서 개신교도 화가들이 진정한 신앙, 참된 용서를 표현하는 주된 메타포가 되었다. 이를 디딤돌로 렘브란트는 <돌아온 탕자>(1636), <돼지치기가 된 탕자>(1647-48) 등 탕자 연작을 그려냈고 최후작으로 <돌아온 탕자>(1661-1669)를 완성하였다. 탕자의 비유는 단순히 렘브란트의 명작이 아니라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돌이킴'이다. 짧은 시절 큰 성공으로 방탕한 삶을 살던 렘브란트는 <터번을 쓴 탕자>(1635)를 통해 자신의 방탕한 모습을 자조하듯 그려낸다. 그러나 짧은 성공 이후 가족들을 연이어 잃으며 큰 고난과 비탄에 빠진 렘브란트는 <돌아온 탕자>(1661-1669)에서 그의 '돌이킴'을 표현한다. 신발 한 짝은 벗겨졌으며 누더기가 된 옷을 걸친 탕자, 그의 모습은 더이상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서던 <터번을 쓴 탕자>가 아니다. 그저 세상에 지친 채, 죄인이고 또 죄인인 모습으로 아버지께 안겨있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준다. 한 손은 굳건한 아버지의 손으로, 다른 한 손은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으로 아들을 감싼다. 어두운 배경과 다르게 따뜻한 빛이 감싸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은 아치형 문과 같은 구도를 통해 감상자를 용서와 은혜의 자리로 초대한다. 정의와 자비의 손으로 아들을 끌어안은 아버지의 사랑은 렘브란트가 느낀 '돌이킴' 속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이 그림은 작품을 만든 렘브란트 뿐 아니라 현대 크리스천에게도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돌아온 탕자>는 크리스천에게 단순한 성서 삽화가 아니라,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시각적으로 재현한 묵상의 장이다. 이 작품의 아버지는 정의의 심판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랑의 아버지로, 죄인이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품어주는 은총을 드러낸다¹. 어둠 속에서 중심 인물만 비추는 빛은 가다머의 해석학적 미학이 말하는 '진리의 현현'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인간의 삶 속에서 사건으로 드러나는 순간을 상징한다². 또한 렘브란트 자신이 탕자의 위치에서 신의 용서를 체험한 인간으로서 이 장면을 회개의 기록이 아닌 체험으로 그려냈기에³, 크리스천은 이 그림 앞에서 자신이 탕자인지, 형인지, 혹은 아버지의 자비를 닮아야 할 존재인지를 성찰하게 된다. <돌아온 탕자>는 렘브란트의 신앙을 표현함과 동시에 감상자가 그들의 신앙을 묵상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¹ Henri J. M. Nouwen,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A Story of Homecoming (New York: Doubleday, 1992).

² Hans-Georg Gadamer, Truth and Method, trans. Joel Weinsheimer and Donald G. Marshall (New York: Continuum, 2004).

³ Simon Schama, Rembrandt's Eyes (New York: Knopf, 1999).

미대생과 인터뷰

신앙과 예술을 더욱 살펴보기 위해 서양화와 최세린 자매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최세린 자매는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소재로 작품을 작업한 경험이 있어 인터뷰이로 섭외하게 되었다.

조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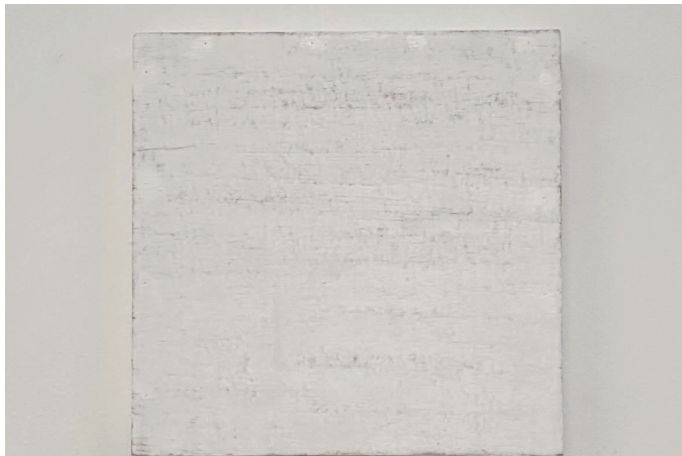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세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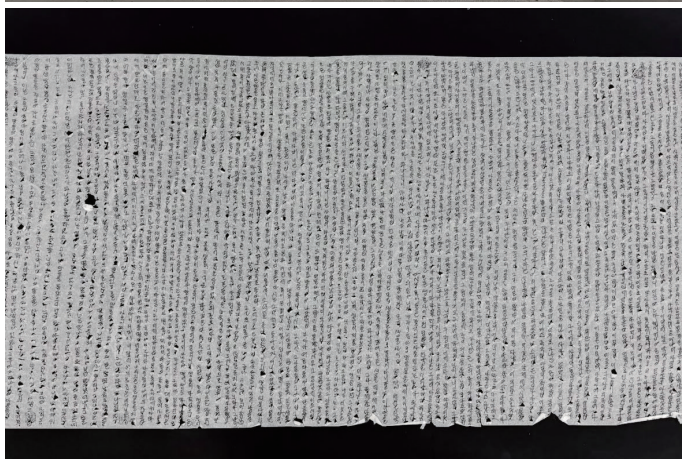
서양화와 24학번 최세린입니다. 현재 CCC에서 소속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건호

작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1. <holy, useless, labor> 2024, 22*22(cm), 나무판넬에 잉크펜



2. <holy, useless, labor> 2024, 39*321(cm), 포장지에 볼펜

최세린

형식적인 나의 믿음을 다룬 작업이자 반복할수록 무뎠어지는 것에 대한 작업입니다.

첫 번째 작업은 하나의 단색 화면처럼 보이지만 마태복음 말씀으로 채워나간 것입니다. 말씀을 쓰면 쓸수록 화면 속에서 텍스트는 해체되고 색면만이 남는데요. 큰 붓질 몇 번이면 채울 화면을 굳이 말씀으로 채운 것입니다.(holy,useless,labor). 두 번째 작업은 포장지에 볼펜으로 창세기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글씨를 힘주며 열심히 적을수록 포장지가 찢기며 말씀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holy,useless,labor). 첫 번째 작업의 텍스트가 쌓이면서 해체된다면, 두 번째는 찢기면서 해체됩니다. 두 작업의 표현방식이 대비되지만 하나의 주제로 엮이도록 구성했습니다. 또 어린 시절에 다닌 기도실을 모티브로 디스플레이했습니다. 영적 슬럼프를 지나 다시 그 때처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 마음이었습니다.

조건호
예술(특히 미술)과 신앙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최세린
애매 하게 하면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정말 제대로 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아야 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또 전공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신앙은 미술에 있어서 하나의 가치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대 내엔 다른 단과대보다 크리스천이 적은데요, 아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작업을 할 때 본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무조건적인 믿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그렇다 보니 미술인으로서 믿음을 갖는 건 나의 개성이 되는 거죠. 나의 시선 안에 신앙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작업에도 영향을 줍니다.

조건호
작업할 때 본인의 신앙이 어떤 영향을 주나요?

최세린
모든 작업의 주제가 신앙인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 중 거슬리고 불편했던 부분들(형식적인 믿음, 위선적인 믿음 등)을 작업으로 다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나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생각이 나는 거죠.

조건호
기독교 성화나 기독교적 의미를 담은 미술 작품들을 알고 있나요? 본인에게 영감을 준 작품이 있는지

최세린
매우 논란이 되는 작업인 <piss christ>가 오히려 나한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신앙 혹은 믿음을 다룰 때, 숭고함이나 아름다움을 기대하지만 오히려 연약하고 추한 모습이

더 현실과 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piss christ>는 너무나 직접적인 예수님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모독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그가 신앙을 아름답게만 다루지 않아 기억에 남습니다.

조건호
독자들이 신앙이 담긴 작품의 감상자로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최세린
결국 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나약하다. 붙잡는 대상이 다를 뿐.... 작품의 메시지가 일방적인 진리의 강요가 아닌 거죠. 미술은 자신(작가)의 이야기를 자신의 방식대로 푸는 것입니다. 신앙이 담긴 작품도 결국 신앙이 담긴 자신(작가)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음껏 즐기면 됩니다.

조건호
결국 누군가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즐기면 된다는 거네요. 기독교 미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가 자신의 ‘돌이킴’을 표현한 작품을 통해 우리가 각자의 ‘돌이킴’을 묵상할 수 있듯이, 누군가의 신앙의 표현을 관찰하는 관찰자에서 나의 신앙을 묵상하는 참여자가 되곤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마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린 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 말씀을 듣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아 나라 하였더라”라고 하였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누군가의 믿음을 본 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 나의 믿음을 앎과 같은 것이네요. 그 믿음의 공명이 작품 감상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조건호(신림과학부 24), 최세린(서양화과 24)

단대기연



경기독



농기연



사범기연



음기연



중앙위



첨용기연

한사랑선교회 소식



안녕하세요~
저는 콜롬비아에서 온 아일린이라고 합니다.
인류학을 전공하고 있고 한국에 온 지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낯설고 힘들었던 한국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후 대학 생활을 시작할 즈음에 새학기 동소제에서 한국어교실을 통해 열방에서 온 유학생을 섬기는 한사랑선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열방에서 온 학생들과 한국어 실력에 따라 그룹으로 나뉘어 문법, 어휘, 발음 특히, 주제별 나눔을 통해 그동안 학습으로만 배우고 익혔던 한국어를 열방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듣기와 말하기가 자연스러워졌고, 요즘에는 주제를 가지고 글쓰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친구를 만나는 것인데 한국어교실에서 친구들과 만남을 가지며 외롭지 않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1학기가 지나고 2학기를 시작할 때 간사님께서 성경공부를 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카톨릭배경에서 자랐고, 아버지께서 아프셨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지금은 많이 건강해지셨고, 학교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실에서 공부했던 미얀마 학생은 본국에서 미션스쿨을 다녔지만 불교를 다니는 어머니의 반대로 교회를 나가지 못했지만 다시 복음을 듣고 성경공부하면서 놀랍게 변화가 되었고, 공산당원증을 보이면서 복음을 거부하던 중국 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한국어만 가르쳐 주세요” 했던 베트남 학생이 학교에서

누군가 영어로 된 성경책을 주었고 그 성경책을 읽는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말레이시아에서 온 학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했던 학생이 성경공부 중에 도마의 믿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열매들과, 라마단 기간을 지키는 모슬렘권 학생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을 심으리라!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2023년 기준 서울대학교 국제학생 수가 약 4,000명 이상이고, 매년 약 3,000명 이상의 외국유학생들이 학부 및 대학원에 등록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체 학생 수의 약 10~15%라고 합니다.
한사랑선교회는 열방에서 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복음 전파에 열린 문임을 알고, “한국어교실”을 열어 한국어를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랑의 섬김 속에서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랑의 섬김을 받으며 “나는 누구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생각해 봅니다.
저는 콜롬비아에 있는 116개의 원주민 소식을 아버지께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렵고 권리와 영토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공부를 마치면 콜롬비아에 돌아가서 내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원주민의 문화권에 들어가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며 꿈을 그려봅니다.

이 말씀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10:45)

아일린(인류25)

서기연 심리상담

기독인연합 상담사역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상담심리사 최은선입니다. 현재는 학내 기독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실시와 해석 그리고 기독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대CCC 간사로 사역하며,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학생들을 가까이 만났습니다. 그중에는 믿음 안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신앙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적 고통을 겪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면 그 부분을 더 잘 도울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기독교 심리상담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균관대학교 카운슬링센터와 중랑구 보건소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내담자를 만나 상담 경험을 쌓았고, 2025년부터는 서울대 기독인연합 상담사역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초빙되어 학내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은 단순히 기도나 위로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심리상담의 기법을 기반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바라보며 회복을 돕는 통합적 접근입니다. 신앙을 강요하거나 교리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함께 탐색하며 심리적, 영적 성장을 함께 도모합니다.

서기연의 상담사역은 2020년 1월 7일 TF팀을 구성하며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까지는 햇빛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센터가 교외에서 전체 사역을 진행해왔으며, 2025년부터는 제가 전문위원으로 세워져 직접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교외로 나가지 않아도, 학교 안에서 기독교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상담사역팀 사역은 학기제로 운영됩니다. 학기 초 공지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고, 다면적 인성검사(MMPI-2)와 기질 및 성격검사(TCI)를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이후 1:1 비대면 해석상담을 통해 검사 결과를 함께 나누었고, 해석상담 이후에는 심리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주 1회, 총 10회기의 대면 기독교 상담을 교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상담 참여자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약 5:5 비율로, 신청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심리적 불편감을 호소한 학생도 있었지만,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1:1 해석상담을 통해 “자기 이해가 깊어졌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을 만나며 가장 많이 느낀 점은 “스스로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우들은 대부분 성실하고 목표지향적이며, 자신에게 엄격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자아는 인지적, 정서적, 기능적 측면이 조화를 이루며 발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 학생들의 경우, ‘기능적 자아’—즉 공부, 성취, 역할 수행에 특화된 자아—가 지나치게 비대해져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능적으로 쓸모가 없다’고 느끼면 곧 존재 가치마저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독교 상담의 목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기능 중심의 자기 이해를 넘어, 하나님 안에서 존재 그 자체로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모습—사랑받는 자,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자—으로 다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이 사역이 교내에서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부, 대학원 대표들과 간사님, 기독인 학부모회, 기독 교수님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손발이 되어 학기 초 프로그램 운영을 셋팅해주는 학생들, 눈물로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는 학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깊은 관심과 기도, 재정적 후원이 더해져 이 사역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사역하는 이유는 단 하나, “서울대 기독인 지체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란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마주할 때마다 ‘이만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늘 따뜻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이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만큼, 여러분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는 손길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이 말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할 때 주어지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무조건적인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그 사랑 안에 자신을 다시 세울 때, 그 사랑이 회복의 시작이 되고, 동시에 삶의 방향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곧 부르심을 완성해가는 길임을 매번 느낍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돕는 곳, 그것이 바로 서울대학교 기독인연합 상담사역팀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역이 서울대 안에서 마음의 쉼과 신앙의 회복을 이어가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은선(서울대학교 기독인연합 상담사역 전문위원)

열린예배 통역팀 후기



안녕하세요, 열린예배 통역을 제가 속한 선교단체 GLDI가 맡게 되면서 이번 열린예배 선교 통역을 담당했던 조경학과 20학번 최하훈입니다.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 자녀로, 초·중·고를 모두 국제학교에서 다녀 영어와 한국어가 모두 모국어인 전형적인 bilingual입니다. 나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자라온 환경을 통해 얻게 된 이 은사를 서울대 기독교학생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기연 예배 통역은 저에게 있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교회나 선교단체 행사에서 외국인 친구를 초청해 비공식적으로 통역한 경험은 여러 번 있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통역한 것은 지난 학기 종강예배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 통역은 이번 열린예배가 처음이었습니다. 다행히 서기연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함께 우왕좌왕하며 현장에서 발생한 여러 기술적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며 협력하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던 만큼, 그 속에서 많은 은혜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배 후 식교제 시간에 유학생 테이블을 맡았는데, “오늘 통역 나였다”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했지만, 학생들이 설교 중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나누는 모습을 볼 때는 더욱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 유학생 사역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또한, 지난 학기부터 GLDI에서 서울대 유학생 공동체를 개척하기 위해 힘쓰고 있었는데, 이번 통역 사역이 그 사역의 큰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서기연 열린예배는 그동안 인스타그램, 포스터, 브로슈어, 국제학생회 톡방 공지 등을 통해 연결되었던 유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고,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GLDI 유학생 모임의 현재 코어 멤버가 된 세 명의 영혼을 얻었고, 지금은 총 17명의 국제학생이 모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게 된 GLDI 기존 멤버까지 포함하면 총 28명이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학생 사역에서 누린 은혜를 추가적으로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이번학기 유학생 모임은 7월부터 일찍이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 않았습니

다. 방학 중이었기에 캠퍼스에 유학생이 많이 없기도 해서 매주 모임의 자리는 지켰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저와 GLDI 이태훈 형님이 함께 기도하며 방향을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모였을 때가 두 명이었지만, 돌아보면 그 시기는 꼭 필요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모임 진행 방식의 틀을 세우고, 포스터와 브로슈어 제작, 인스타 페이지 개설 등 리크루팅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었기에 개강 후 많은 영혼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 어떤 수단도 헛되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새롭게 연결된 유학생들 중 두 명은 현재 개인양육을 받고 있으며, 함께 전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무신론자였으나, GLDI 전도부스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유학생들이 타지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전도와 양육까지 배우는 통로로 우리 모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기연을 통해 경험한 이번 열린예배 통역 사역은 저에게 단순한 ‘봉사’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서기연의 시선이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에 따라 모든 민족에게 향하고 있음을 직접 보았고, 그것이 유학생 사역에 큰 활력이 되었습니다. 서기연의 예배가 외국인 유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열린 공동체’로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감사와 감동이 넘쳤습니다. 앞으로도 서기연이 더욱 많은 영혼을 품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예배 공동체로 자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20절)

최하훈(조경20)

대학총교회 50년사 발간 소식

오랜만에 지면을 찾은 게 쑥쓰러우니 가벼운 tmi로 시작해봅니다. 저의 가장 큰 단점은 기록에 대한 습관도 요령도 없다는 겁니다. 공부든 일이든 열심히 하면서도, 필기는 좀처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대학총교회 50년사" 편집위원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작년 상반기의 일입니다.

초반 회의에 참석하면서 놀랐던 건, 우선 대학총교회가 이미 10년, 20년 단위로 역사 편찬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기록에 이어 이번 작업에서는 2005년부터 2024년까지의 20년 세월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교회사 편찬에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을 보이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치 이 자료를 통해 드러나고 전해질 은혜가 미리 보이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 지난 11월 말, "대학총교회 50년사" 책자의 초판이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문득,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옛 선지자들과 제자들로 성경을 집필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대학총의 편찬위원회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구나.

목차를 소개하자면, 1부 '교회 사역'은 개관/예배/재정, 관리/양육과 훈련/다음세대학교/장년학교/선교 등 내용을 서술했습니다. 2부 '특별 기고문'은 교회생활의 구석구석을 깊이 있게, 더러는 개성과 재치를 살려 추억해주신 분들의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연혁과 각종 명단, 규정을 담은 '부록'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주목하게 된 몇 가지를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1) 동역자의 이름들

50년사에는 수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해마다 교회를 찾아와 원입한 사람들, 교역자와 제직 성도님들, 교회학교를 구성한 아이들, 각 공동체의 교사와 임원들. 우리 교회나 지역을 떠나셨다는 분들과,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는 분들도 다수 계십니다. '임현우'라는 이름은 대학부 형제로 나왔다가, 전도사님으로 나왔다가, 훗날 담임목사님으로 등장합니다. 00년대에 청년부에서 부부를 이룬 커플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힌 페이지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모르더라도 함께 지어져가던 믿음의 선배들의 존재는 감사하고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소중하고 든든합니다. 서림동 언덕 꼭대기의 그 건물보다도 뚜렷한 교회의 실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27)"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2) 기억 속의 교훈들

여러 사람과 상황이 오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회의 운영은 변화를 거듭합니다. 당연히 좋은 방향일 때도 있고, 아쉬운 방향일 때도 있겠습니다. 대학총에서 20대를 보내고 있는 저로서는, 코로나만을 탓할 수 없는 우리의 메마른 모습이 고민스럽곤 합니다. 그런 가운데 '뿌리, 줄기, 가지'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박영범 목사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양육에서는 성경공부부터 일상의 실천까지, 신앙생활의 다양한 주제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었다고 합니다. 한편 신동준, 권혁, 이춘근 집사님들의 생활관 이야기에, 자유롭고도 바빴을 청년들이 밤 10시마다 꼬박꼬박 기도모임을 했던 기억이 담겨있습니다. 서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훈련이며, 향후 인생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힌트처럼 다가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3) 하나님 은혜의 증거들

서로 다른 부서와 역할에 있는 교인들의 기록과 간증이 모이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 풍성하게 증거됩니다. 예컨대, 담임목사직이 비어있는 기간에도 매주 설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세대 섬김과 후원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때와 필요에 맞는 건물 임차를 인도하셨습니다. 성도와 새가족, 교사와 학생들 간의 교육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지역사회 선교와 재능 기부 의 통로를 여러 형태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열하자면 끝도 없겠지요. 우리가 때로 관성에 젖거나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느낄지라도, 그분은 늘 우리의 처한 현실 속에서 세밀하게 일하십니다.

이렇게 정리된 역사를 마주하고 보니, 앞으로 우리가 대학총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더 자주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형태의 기록을 잘 쌓기도 해야겠습니다. 50년사 책자는 2025년 11월 23일 대학총 창립기념일에 발간되었습니다. 편집본 작업만이 남아있습니다. 일 년 넘게 집필과 편집으로 수고해주신 교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은혜의 이야기를 함께 써 내려가는 동역자 모두를 축복합니다.

최하영 (편집인)

열린 예배



공기연 식교제



국제학생 식교제



기도 시간



아이자야식스티원의 찬양



조정민 목사님의 설교



저학번 특송(1)



저학번 특송(2)



축복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1)



찬양하는 모습(2)



찬양하는 모습(3)